

# 불전언해의 몇 가지 문제

김 무 봉(동국대학교 교수)

## I. 서 론

훈민정음이 창제·반포(세종 28년, 1446년)되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말로 하는 언어[口語]와 글로 쓰는 언어[文語]가 서로 다른 이중적인 언어생활을 해 왔다. 이러한 이원화된 언어생활로 당시의 언중들이 겪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구어(口語)와 문어(文語)가 다른 비정상적인 언어생활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이두(吏讀), 구결(口訣), 향찰(鄉札)이라는 우리 나름의 독특한 차용표기 체계를 만들어 냈으나 언중(言衆)들의 자유로운 문자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자에 잇따라 발굴되는 고려 및 선초(鮮初)의 구결불경<sup>1)</sup>들은 당시 차용표기 체계가 매우 발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의 문자생활이 얼마나 궁색하고 불완전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문자라는 시각적 기호는 구어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표의문자요 문어적 성격이 강한 중국 글자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말과 글에는 적잖은 양의 한문투 문장이 생성되었다. 게다가 이두문이나 구결문 역시 의미부인 한문 문장에 주로 형식 형태소만 한자로 우리말을 첨기한 것이어서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의 불편은 식자층(識者層)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 고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겪은 이러한 고통은 국문자 창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했고 급기야 호학(好學), 애민(愛民)의 성군인 조선조 4대 임금 세종으로 하여금 훈민정음의 창제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로써 고립어(孤立語)인 중국어를 적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 문자로 교착어(膠着語)인 우리말을 적었던 천 수백여 년 비정상적인 언어생활의 시대는 가고, 우리 문자로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국문자 시대가 열린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로 우리말의 전면적인 표기가 가능해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실체는 달랐다. 오랜 기간 동안의 한자 사용으로 한문 문장 구사에 익숙해 있던 언중들의 문자 사용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우리 문자를 앞장서서 사용하고 널리 보급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식자층에서는 한자 사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의 수용을 외면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반 백성들의 국문자 사용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과는 달리 문자 보급 수단 및 교육 여건이 미비했던 터라 전파(傳播)가 용이치 않았던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주저는 어떤 창안에도 결따르는 것이지만 훈민정음의 앞길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

1) 주로 약체자로 된 구결을 달아서 읽었던 한문 경전을 이른다. 순독구결(順讀口訣)이 현토된 경전과 석독구결(釋讀口訣)이 현토된 경전을 포괄한다. 구역인왕경(상)과 금광명경, 능엄경 등 오늘에 전하는 것만도 20 여 종에 달한다.

연히 훈민정음의 창제를 주도했던 왕과 왕실이 이의 타개에 나섰고, 그 한가운데에 세종과 세조가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주로 한문 문헌에 대한 번역, 곧 ‘언해’를 행하거나 새로 만들어진 국문자로 책을 만드는 이른바 ‘정음 문헌’<sup>2)</sup> 간행의 형태로 나타났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간행된 정음 문헌들은 우리 문자로 기록된 초기의 전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문헌들에 실려 전하는 언어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이들 문헌들을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제 직후 간행된 정음 문헌들은 세조를 비롯한 왕실과 간경도감 등의 중앙 관서가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중앙의 상층부 언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문헌들이 주로 번역서의 성격을 띠지 않았다는 점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에 간행된 정음 문헌 중 상당수는 불전언해이고, 이 문헌들에 실려 전하는 언어는 앞 시대의 구결이 현토된 불경, 이른바 구결불경들의 전통을 많은 부분에서 계승하고 있다. 언해된 불경들은 앞 시대의 구결이 현토된 불경에 견인된 결과 당연하게도 축자역(逐字譯, word-for-word translation) 위주의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사용되었던 생생한 구어의 반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창제 직후 간행된 <석보상절> 등의 문헌은 번역서라고 하더라도 의역(意譯, literary translation)의 비중이 커서 당시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용되는 바 크다. 그러나 <훈민정음> (언해본) 이후 잇따라 간행된 대부분의 불전언해본들은 앞 시대 구결불경의 영향을 받아서 직역 위주의 문어투 문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관판본인 데다가 구결의 의고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는 창제 직후의 국문자 보급과 관련하여 왕실 등의 중앙 관서가 직접 개입한 데에다 자유로운 번역(free transl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불전언해본들은 대부분 한문불경에 언해문을 대응시킨 번역 양식, 이른바 대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 방식으로 인해 의역을 할 경우 원의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논의의 제 II장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간행된 구결불경과 이후에 간행된 언해불경과의 관계를 살필 것이고, 제 III장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 번역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언해란 어떤 형식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제 IV장에서는 당시 불전 번역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국가기관의 하나인 간경도감의 체제와 불전언해의 간행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살필 것이다. 제 V장에서는 구결불경과 언해불경의 전통 계승 문제를 실례로써 검증하고, 당시의 언해불경과 그 현대역을 한문 경전의 현대역과 비교함으로써 언해불경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 논의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이루어진 불전언해

2) 여기서 지칭하는 정음 문헌이란 국문자로 표기된 모든 간행물과 필사된 문건을 아울러 가리킨다. 당시의 문헌 중 정음만으로 된 것은 없으므로 모두 국한혼용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활자본, 목판본, 목활자본은 물론이고 필사본도 국문자와 한자가 함께 쓰였으면 정음 문헌에 포함시킨다.

가 구결불경의 전통에 기대어 직역 위주로 간행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실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 II. 구결불경과 언해불경

불교 경전을 국어로 읽고 적기 위한 노력을 폭 넓게 해석한다면 그 시원(始原)은 고대국어 시기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7세기경에 이미 구결 표기가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록이 있다. 7세기 중엽 의상(義湘)대사가 화엄경을 강의한 것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결집한 「요의문답(要義問答)」과 의상의 강의를 또 다른 제자 도신(道身)이 결집한 「일승문답(一乘問答)」이 ‘雜以方言’(신편제종교장총록, 대각국사)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sup>3)</sup> 지통의 ‘요의문답’이 지금은 전하지 않는 일서(逸書)가 되었고,<sup>4)</sup> 도신의 「일승문답」 역시 원문만 균여의 기석(記釋)에 인용되어 있을 뿐 구결은 전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시기적으로 뒤지기는 하지만 균여대사(均如大師)에 의해 10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화엄경기석(華嚴經記釋)」 가운데 「석화엄교분기(釋華嚴教分記)」 권3에는 실제로 구결이 나타난다.<sup>5)</sup> 또 11세기에 활동했던 의천(1055-1101)의 문집인 「대각국사문집」에는 ‘翻譯方言’이라는 구결이 나오며, 12세기 초에 활동했던 임경화(林景和, 1103?-1159)와 관련된 기록에 ‘方言釋之’란 구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구결에 의한 번역이 꽤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만 가지고는 그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경을 읽는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었거나, 일반화 또는 규범화하지 않은 구결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사의 고대국어 시기는 경전을 국어로 읽으려는 노력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시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73년 12월 충남 서산군 운산면 문수사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복장품(腹藏品) 중 하나로 발굴된 낙장본 「구역인왕경(舊譯仁王經)」(12세기 중엽 완성) 상권(2. 3. 11. 14. 15)의 출현은 종래 전기 중세국어에 대한 연구가 음운 및 어휘 연구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 이후 발굴된

- 
- 3) ‘但以當時集者 未善文體 遂致章句鄙野 雜以方言 或是大教濫觴 務在隨機耳 將來君子 宜加潤色’  
(당시의 집록자가 문체가 좋지 않아서 문장이 촌스럽고, 방언이 섞여있다. …장래의 군자가 마땅히 윤색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전서 4권(서울: 동국대학교, 1982:682).
- 4) 근자에 김상현에 소개된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은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다(「추동기와 그 이본 화엄경문답」, 『한국학보』 제84집, 서울: 일지사, 1996:28~45쪽). 이 책은 중국 당나라의 사문 법장(沙門 法藏, 643-712)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일본 쪽 문헌에 수록되어 전한다. ‘화엄경문답’이 실려 있는 문헌은 「대정신수대장경」과 「대일본속장경」 등 2권이다. 위 논의에서 이 책을 ‘추동기’의 이본으로 추정하고, 저자도 법장이 아니라 의상(義湘)의 제자가 필록(筆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두 전언에 의하면 이 책의 한자 어순의 일부는 우리말 어순과 같다고 한다. 서영(書影)에는 일본 혼독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구결이 있다.
- 5) 균여의 저술에 보이는 구결에 대해서는 안병희,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제 16호(서울: 국어학회, 1987). 남풍현, 「석독구결의 기원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100호(서울: 국어국문학회, 1988) 참조.

<능엄경> 등의 다른 구결자료와 함께 문자론적인 연구는 물론 문법론적인 연구(형태·통사 영역)까지 연구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구결자료는 석독구결(釋讀口訣)과 순독구결(順讀口訣)로 나뉜다.<sup>6)</sup> 석독구결은 한문에 부호나 토를 달아 그 한문을 우리말로 새겨서 읽는 방법이고, 순독구결은 음독구결(音讀口訣)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한문의 원문을 순서대로 음독하면서 구두(句讀)에 해당되는 곳에 우리말의 토를 달아 읽는 독법이다. 순독구결은 석독구결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흔히 구결을 말할 때는 순독구결을 이른다. 현재 알려진 불경 구결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대체로 14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들이다.

1) 석독구결자료 : 구역인왕경, 유가사지론, 화엄경, 화엄경소, 금광명경 권3.

2) 순독구결자료 : 능엄경 4종 : 박동섭본(안동), 남권희본(대구), 기림사본, 송성문본 직지심체요절, 남명집 2종, 불설42장경 4종, 법화경 2종, 범망경 4종,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3종, 자비도량참법, 영가진각선사증도가, 금강경 2종 등.

여말 선초에 간행된 구결불경들에 대한 연구는 부호(符號)나 점(點), 그리고 구결자(口訣字) 등의 해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간행된 언해불경들과의 연관성 규명에까지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 결과 전통 계승에 대한 몇몇 단편적인 보고도 이루어졌다.<sup>7)</sup> 선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남풍현 교수 소장의 구결 <법화경> 1, 2, 3권이 <법화경언해>(1463)와 대체로 일치하며, 14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남권희 교수 소장본 구결 <능엄경>이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보고 등이 그것이다. <능엄경언해>의 각권 권말에는 ‘요해(要解), 의해(義解), 회해(會解), 집주(集注)’ 등 네 부분으로 나뉜 음석(音釋)이 있는데, 이 중 ‘요해’ 부분은 남권희본의 ‘음’부분을 그대로 전재하였다.<sup>8)</sup> 이로 미루어서도 알 수 있듯이 <능엄경언해>는 구결 <능엄경> 이본들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다.

이러한 구결 현토 불경의 제작은 국문자 창제 이후에도 한 동안 계속되어 한자 약체자가 기입된 구결불경은 물론 한글로 토를 단 구결 <원각경>(1465) 등이 현전한다.

국문자가 없던 시대에 국문자 대응 표기법으로 창안된 구결은 통일신라 시대 이래 우리말 불경의 구성에 널리 이용되었다. 구결이 달린 불경은 통일신라와 고려조

6) 석독구결과 순독구결의 구분과 그 개념의 정리는 남풍현, 앞의 논문, 233-234쪽 참조. 최근에 발굴·소개된 이른바 부호구결에 대해서는 이승재, 「주본 화엄경 권22의 각필 부호구결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7집(서울: 구결학회, 2001:1-30쪽). 정재영, 「성암 고서박물관 소장 진본 화엄경 권20에 대하여」, 『구결연구』 제7집(서울: 구결학회, 2001:33-54쪽) 등 참조.

7) 최근 김영배(「조선초기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에서는 구결 <능엄경>과 <능엄경언해>를 대상으로 그 전통 계승 여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구결 <능엄경> 중 박동섭본 소장본의 구결이 언해본에 적지 않게 계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8) 이승재, 「여말선초의 구결자료」,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참조.

를 거치면서 점차 그 표기 방법의 정밀화가 이루어져 ‘한자 차용 표기체계’의 정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대부분의 전기 중세국어 자료가 구결불경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구결불경은 우리 조상들의 언어생활의 일부가 반영된 중요한 국어사 자료로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까지도 조성되었다.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한글불경, 곧 불전언해본들은 앞 시대에 조성된 구결불경에 기대어 간행될 수밖에 없었다. 환언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언해불전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건 이전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양상이 15세기 불전언해서에 나타난 것이다.

### Ⅲ. 번역과 언해

세종은 새로 제정된 문자의 정착 및 보급을 위해<sup>9)</sup> 훈민정음을 과시(科試)에 포함시키고,<sup>10)</sup> 세조는 성균관 유생들의 학습 과정 중 하나로 만드는<sup>11)</sup> 등 왕실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결국 한자로 씌어진 한문 문헌을 우리 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듯하다. 한문 문헌을 국문자로 번역하기 위한 논의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세종이 최만리(崔萬理) 등의 반대 상소문에 대해 행한 답변 중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에게 이른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12)</sup> 세종~연산군대에 간행된 정음 문헌 중 번역이 아닌 책은 <월인천강지곡> 등 몇몇 문헌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번역 문헌이 주류를 이루고,<sup>13)</sup> 세종실록과 세조실록 등에 번역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구결 작성과 관련된 기사가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당시에 ‘번역(翻譯)’이라는 용어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석보상절서」에서 찾을 수 있다. 곧 <월인석보> 1권 권두에 실려 있

9) 세종시대의 어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근수, 『조선조의 어문정책』, (서울: 홍익대 출판부, 1979).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참조.

10)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並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세종 28년(1446) 12월 己未條 <세종실록 114권 28장>

‘傳旨吏曹 正統九年閏七月教旨節該 …始先試訓民正音 入格考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並試訓民正音’

세종 29년(1447) 4월 辛亥條 <세종실록 116권 4장 - 5장>

11) ‘禮曹參定成均館九齋之法啓 … 又於式年講學子四書三經 自願講他經者 及欲講左傳綱目 宋元節要 歷代兵要 訓民正音 東國正音者聽’

세조 10년(1464) 9월 辛未條 <세조실록 34권 27장>

12) 세종이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간행을 명했던 <삼강행실도>의 언해와 관련된 기사가 그것이다.

‘前此 上教昌孫曰 予若以諺文 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信孝子烈女必輩出矣 昌孫乃以此啓達’

세종 26년(1444) 2월 庚子條 <세종실록 103권 21장>

13) 15세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 중 번역을 거치지 않은 책으로는 <악학궤범(樂學軌範)>(1493년)과 같은 음악서와,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1449년)나 <금양잡록(衿陽雜錄)>(1492년)처럼 인명이나, 곡물명을 적은 책이 있고,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1471년)나 <이로파(伊路波)>(1492년)와 같이 정음으로 독음을 단 책 등이 있다. 이 중 <사리영응기>, <금양잡록>, <해동제국기> 등 세 책은 정음으로 된 부분이 일부(부록)에 지나지 않으므로 책 전체를 정음 문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석보상절서」 중 “~又以正音 就加譯解~”의 역(譯)이라는 글자에 대한 언해 협주에 매우 간명(簡明)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譯은 翻譯이나 ㄴ뎨 나랏그를 제 나랏글로 고터 쓸씨라 (석보상절서: 67)14)

위의 협주로 미루어 번역을 ‘외국어로 된 문장을 자국어 문장으로 바꿔 쓰는 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된 소재 언어(source language)를 대상 언어(target language)인 자국어로 바꿔 쓰는 일’인 것이다. 이 때 ‘자국어로 문장으로 바꿔 쓰는 일’이 바로 ‘번역’이요, 단순히 그 말만을 옮기는 통역(通譯)과는 다른 의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을 ‘언해’로 바꾸어 붙였던 조선조 후기의 역학서(譯學書)에서는 ‘언해’를 중국어, 곧 한문 문헌에 대한 국어 번역을 이르는 말로만 인식한 듯한 실례가 보인다.<sup>15)</sup> 예컨대 같은 역학서인 노걸대(老乞大)를 번역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어 역학서에는 <노걸대언해>(1670년)라고 한 데 비해, 중국어 원문을 만주어와 몽고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국어로 번역한 책인 경우에는 ‘언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청어노걸대>(1703년), <몽어노걸대>(1741년)라 하여 서로를 구분하였다. 이렇듯 ‘번역’ 또는 ‘언해’라고 했을 때의 원전은 모두 한문 문헌이다.

번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한문 문장에 구두(句讀)를 확정하고 정음으로 구결을 달아 구결문(口訣文)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한문 문장의 번역에서 원문에 구결을 다는 이른바 구결 현토(懸吐)는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일이었다. 구결을 제대로 달았다는 사실은 원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반영이면서,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구결 확정부터를 번역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세조대에 간행된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서에는 왕이나 왕실이 직접 나서서 구결을 확정했다는 기록이 권두서명 아래쪽의 구결작성자 기명행(記名行)과 발문 등 곳곳에서 확인된다. ‘親加口訣’ (능엄경언해, 김수온 발), ‘親印口訣’ (선종영가집언해, 신미 발), ‘親定口訣’ (금강경언해, 효령대군 등 발), ‘御定口訣’ (원각경언해, 구결작성자 기명행), ‘康寧殿口訣’ (주역전의구결, 구결작성자 기명행) 등과 동궁(東宮) 편전(便殿)인 비현합(丕顯閣)에서 이루어진 ‘丕顯閣訣’ (목우자수심결언해, 구결 작성자 기명행) 등이 그러하다.

국어학계에서는 갑오경장(甲午更張) 이전에 간행된 한문 문헌의 번역본을 가리켜 통상 ‘언해’라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한문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14) ( )의 앞쪽에는 서명을 쓴다. 이 문헌에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서명 다음에 오는 앞쪽의 숫자는 권수를 보이는 것이고 뒤쪽의 숫자는 장차를 표시한다. ‘ㄱ’은 장의 앞면, ‘ㄴ’은 뒷면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15)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1940). 최현배, 『고친 한글갈』 (서울: 정음사, 1961). 안병희, 「언해의 사적 고찰」, 『민족문화』 제11호(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5)를 참조하였다. 이 외에도 언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위 논의들에 기댄 바 크다.

그 방법까지를 포괄해서 ‘언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15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렇다. 세종 재위시는 물론이고 15세기에 간행된 정음 문헌을 통틀어도 ‘언해’란 말이 직접 문헌에 나타난 예는 없다.<sup>16)</sup> 실록에서도 그러하거나와 세종 이후 15세기말까지 약 50년간 번역에 의해 출판된 책들의 제명(題名)이나 진전문(進箋文), 서발(序跋) 등 어디에도 ‘언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아무런 주저 없이 15세기 번역 문헌에까지 언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 해명할 때가 되었다. 흔히 ‘언해서’라고 하는 책들의 제명은 대체로 한문본의 제명과 동일한 경우가 많다. 동일한 제명을 가진 문헌이 두 가지 문자로 표기되어 전할 때 이를 구분할 마땅한 방법이 달리 없었을 것이고, 이 점이 바로 ‘언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같은 내용, 같은 제명의 두 책 중 하나는 한자로 표기된 원전이요, 다른 하나는 국문자로 표기된 번역본이라면, 결국 번역본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본에 자연스레 ‘언문으로 번역했다’는 의미를 가진 ‘언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는 요즈음에도 외국어로 된 책을 번역해서 출판할 때 서명 뒤에 ‘번역’이나 ‘국역’이라고 명기하지 않더라도 ‘번역본’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번역’이라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용어 대신 갑오경장 이전에 간행된 한문 문헌의 번역본에 대해서만 굳이 ‘언해’라 하여 용어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언해’라는 용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그 사용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이런 점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해’란 용어의 합당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언해’라고 불리는 책의 상당수는 15세기에 간행된 문헌들인데 앞에서 말한 대로 15세기 정음 문헌 중 ‘언해’라는 용어가 직접 거명된 책은 없다. 실록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록에 ‘언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초반인 중종 때이고, 실록 이외의 기록에서도 1510년대에 처음 나타날 뿐이다. 게다가 서명에 ‘언해’가 처음 쓰인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16세기말 교정청(校正廳)에서 간행된 유교 경서 언해부터이다.

세종~연산군대의 실록이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세기 말까지 언해된 책들의 여러 기록에는 아직 ‘언해’란 말이 없고, 그 자리에 ‘역해(譯解), 역(譯), 번역(翻譯), 번서(翻書), 반역(反譯), 언석(諺釋), 언역(諺譯)’ 등의 용어가 쓰였다. 이 용어들은 모두 ‘원전에 대한 다른 나라 말로의 옮김’, 또는 ‘한문 원전에 대한 우리말로 옮김’을 뜻하는 말들이지만, 특히 ‘언석’과 ‘언역’은 한문 문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가리키는 말인 ‘언해’와 매우 근사하다.

‘언해’란 용어가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 초인 중종 9년(1514년) 4월 정미

16) 15세기에 간행된 문헌의 제철(題簽)에 언해가 보이기도 하나(올해자본 능엄경언해 권5), 이는 뒷날 개장시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9권의 책 중 어디에서도 같은 제철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丁未條)의 기사<sup>17)</sup> 중 ‘언해의서(諺解醫書)’부터이다. 기록상으로는 「노박집람범례(老朴集覽凡例)」(1510년대 초)의 기록<sup>18)</sup>과 「이륜행실도서(二倫行實圖序)」(1518년간)의 기록,<sup>19)</sup> 그리고 최세진의 「사성통해서(四聲通解序)」(1517년)<sup>20)</sup>등에 나오는 ‘언해(諺解)’가 그 첫 번째 예인 것이다. 모두 1510년대이다. 서명으로는 내제 및 판심제에 ‘小學諺解’라고 한 선조조 교정청(校正廳) 간행의 <소학언해>(1588년간)가 처음이다. 이후 선조조에 교정청에서 간행된 <논어언해>, <중용언해>(1590년간) 등 대부분의 유교 경서 언해본에는 책명에 ‘언해’가 명기되어 있다.

17세기 이후에는 교정청에서 간행된 유교 경서 언해가 널리 보급되면서 ‘언해’란 용어가 일반에 두루 쓰이게 된 것으로 본다.<sup>21)</sup> 그리고 이것이 15세기 번역 문헌에 까지 소급되어 한문 문헌 원전에 대한 ‘국어역’ 전체를 일러 ‘언해’라고 이름하게 되었던 것이다.

‘언해’는 ‘언자역해(諺字譯解)’나 ‘언문역해(諺文譯解)’, 또는 ‘언서역해(諺書譯解)’의 줄임말인데, 당시 우리말과 글의 별칭 중 하나였던 ‘언문(諺文)’으로 ‘번역’했다는 뜻이다. ‘훈민정음역(訓民正音譯)’ 또는 ‘정음역(正音譯)’<sup>22)</sup> 등의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언해’라고 한 것은 ‘언문역해’, ‘언자역해’, ‘언서역해’ 등에 나오는 ‘언(諺)’이라는 말이 중국어에 대한 상대어로서 우리말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문 원전에 대한 번역 대상 언어의 명칭으로 ‘언문’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상 언어를 구체화하지 않은 용어인 ‘번역’이나 ‘역해’ 등의 막연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 고유어를 지칭하는 용어인 ‘언문’으로 ‘역해’한 글이므로 ‘언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이 용어를 처음 쓴 시기가 기록상으로는 15세기가 아니고 16세기 초엽이 되는 것은 세종 당시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다. 15세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반포된 시기이다. 새로 제정된 문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책상의 여러 배려가 있었고, 이는 그 명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을 아울러 가리키는 용어인 ‘언문’이라는 이름보다는 한자음은 물론 중국어음까지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붙여진 이름인 ‘훈민정음’으로 부르는 것이 당시의 언어 정책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훈민정음’은 새로 제정된 국문자의 공식 호칭이었던 것이다.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서’나 ‘실록’ 등의 기록으로 확인할

17) ‘以諺解醫書一張 下政院曰’ 중종 9년(1514) 4월 丁未條 <중종실록 20권 23장>

18) ‘兩書諺解簡帙重大 故朴通事 分爲上中下’ <2장 앞면>

19) ‘曰諺解正俗 諺解呂氏鄉約 正鄉俗也 曰諺解農書’ <2장 뒷면>

20) ‘臣則將二書 諺解音義 書中古語袁成輯覽 陳乞刊行’ <2장 앞면>

21) 안병희, 앞의 책(1985) 참조.

22) 세종 당시 우리 문자의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었으나 줄여서 ‘정음’으로 부르기도 했다.

‘我殿下 創制正音二十八字’ 「訓民正音 解例 鄭麟趾序」

‘又以正音으로 就加譯解호노니’ 「釋譜詳節序 5ㄴ」

‘就譯以正音호야 俾人人易曉케 호야’ 「月印釋譜序 12ㄴ」

또 설치 시기가 좀 뒤지고(문종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정음 관련 일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음청(正音廳)’이라는 기관의 이름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수 있다.<sup>23)</sup> 물론 15세기에 언문이라는 명칭이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만리의 상소문이나 세종의 답변에도 ‘언문’이라 되어 있고 실록에서도 언문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이는 비록 당시, 우리 글자의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더라도 ‘언문’이라고 불렀던 오랜 관행을 일조일석에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래서 15세기 실록의 번역에 관련된 기사나 관판본이 대부분인 번역 문헌의 서발(序跋)에는 ‘以國語翻譯’, ‘譯以國語’ 등의 어구와 ‘譯以諺文’ 또는 ‘以諺字譯’ 등의 어구가 함께 쓰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5세기에도 한문 문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형식은 ‘언해’였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까지는 한문 문헌에 대한 국어 번역의 공식 명칭으로 아직 ‘언해’란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한 가지 보탠다면 왜 ‘以訓民正音譯’ 또는 ‘譯以訓民正音’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당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에는 좀 생소한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자에 대한 번역어의 명칭으로 쓰기에는 그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우리 글자의 성격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의 수가 많은 것도 배제 이유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 「월인석보서(月印釋譜序)」에 ‘譯以正音’이라는 구절은 있으나 ‘譯以訓民正音’이나 ‘以訓民正音譯’이라는 구절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연산군대 이후 여건의 변화로 ‘언문’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그 결과 ‘언해’란 용어도 널리 쓰인 것으로 본다. ‘언해’는 일반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국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인출된 정음 문헌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언해’는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읽고 적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요, 인출 양식인 셈이다. 단지 그 명칭은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16세기 이래의 한문 번역 문헌에 ‘언해’라는 이름이 쓰인 것이다.

#### IV. 불전언해와 간경도감

15·16세기에 간행된 불교 관련 문헌은 당시에 간행된 정음 문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 관련 문헌 중 대부분은 불경의 언해이다. 불교 관련 정음 문헌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3) ‘是月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세종 25년(1443) 12월 庚戌條 <세종실록 102권 42장> ‘是月訓民正音成’ 세종 28년(1446) 9월 甲午條 <세종실록 113권 36장>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示之 名曰訓民正音’ 「訓民正音 解例 鄭麟趾序」  
 24) 언문과 훈민정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동립,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문화비평』 제4권 1호(서울: 아한학회, 1972).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 27자 책정 근거」, 『양주동박사 고회기념 논문집』(서울: 1973). 「언문과 훈민정음의 관계」,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서울: 1980). 「국문자모의 두 가지 서열에 대한 해명」, 『성원경박사 회갑기념 한·중 음운학 논총 I』(서울: 1993) 참조.

[1]. 15세기 불교 관련 문헌

- 1) 석보상절(釋譜詳節, 1447년)
- 2)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1447년)
- 3) 사리영응기(舍利靈應記, 1449년)
- 4) 월인석보(月印釋譜, 1459년)
- 5) 몽산법어언해(蒙山法語諺解, ?1459년)
- 6) 활자본 아미타경언해(活字本 阿彌陀經諺解, ?1461년)
- 7) 활자본 능엄경언해(活字本 楞嚴經諺解, 1461년)
- 8) 목판본 능엄경언해(木版本 楞嚴經諺解, 1462년)
- 9)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 1463년)
- 10)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1464년)
- 11) 목판본 아미타경언해(木版本 阿彌陀經諺解, 1464년)
- 12)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1464년)
- 13) 반야심경언해(般若心經諺解, 1464년)
- 14) 상원사 어첩 및 중창 권선문(上院寺 御牒 및 重創勸善文, 1464년)
- 15)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1465년)
- 16) 원각경구결(圓覺經口訣, 1465년)
- 17)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 1467년)
- 18)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 ?1467년)
- 19) 한글판 오대진언(五大眞言, ?1476년)
- 20) 수구영험(隨求靈驗, 1476년)
- 21)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1482년)
- 22)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 1482년)
- 23) 불정심경언해(佛頂心經諺解, 1485년)
- 24) 오대진언(五大眞言, 1485년)
- 25) 영험약초(靈驗略抄, 1485년)
- 26)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1496년)
- 27) 진언권공(眞言勸供, 1496년)
- 28) 삼단시식문언해(三檀施食文諺解, 1496년)
- 29) 개간 법화경언해(改刊 法華經諺解, 1500년)

[2]. 16세기 불교 관련 문헌

- 1) 법집별행록절요언해(法集別行錄節要諺解, 1522년)
-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1553년)
- 3) 성관자재구수육지선정(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1560년)
- 4)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언해(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諺解, 15세기중엽)
- 5)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蒙山和尚六道普說諺解, 1567년)
- 6) 선가귀감언해(禪家龜鑑諺解, 1569년)
- 7) 칠대만법(七大萬法, 1569년)
- 8) 진언집(眞言集, 1569년)
- 9) 염불작법(念佛作法, 1572년)
- 10) 제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야운자경서(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序, 1577년)

위에 열거한 책들 중 일부는 간경도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간행되었다. 세조는 즉

위 7년(1461년) 6월에 경전 간행을 위해 한시적인 국가기관인 간경도감을 두어 경전 간행 사업을 전담케 했다.<sup>25)</sup> 간경도감은 1471년(성종 2년) 폐지<sup>26)</sup>될 때까지 11년 동안 존속하면서 한문 경전 간행 30여 건<sup>27)</sup>, 국역 경전 간행 9건 등의 실적을 냈다. 특히 존속 기간 중 전반기에 해당하는 5년 동안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유교를 국시로 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열악한 출판 환경, 그리고 정착 단계에 이르지 못한 훈민정음으로 그토록 방대한 양의 저술을 냈다는 사실은 실로 이적에 가깝다. 이로써 우리는 부족하나마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우리말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유산을 상당수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간경도감은 경전 간행에 관한 한 고려시대의 대장도감(大藏都監)이나 교장도감(敎藏都監)에서 그 본을 찾은 듯하다. 간경도감 간행의 한문 불서 중 상당수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속장경을 중수(重修)한 것이다.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한문 불서 중 속장경을 재조(再雕)한 것은 간기에 ‘중수’라고 하여 초간(初刊) 불서에 적힌 ‘조조(雕造)’와 구분하였다.

그 외 관직 구성과 지방에 분사(分司)를 둔 점도 비슷하다. 관직 구성은 의정부(議政府)의 우의정(右議政)급을 도제조로 하고, 판서 등이 제조가 되는 등 조정의 중신들이 겸직한 경우가 많았다. 한 직책에 복수로 임명하기도 했다. 설치 당시에는 도제조, 제조, 사, 부사, 판관 등의 직책을 둔 것으로 기록에 전하나<sup>28)</sup> 조조관(雕造官)의 열함(列銜)에 의하면 <능엄경언해>부터 제조 밑에 부제조라는 직책이 더해졌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시행되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현전 언해불서 중 초간에 해당하면서 조조관의 열함이 온전히 전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참여 인사의 수를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도제조 이외의 인물에 대해서는 명수만 적는다. 대체로 한 문건당 20명 내외의 인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보직을 가진 인물 외에 판각과 교감 등 기타의 간역(刊役)에 동원된 장인(匠人), 역부(役夫)의 수도 170명<sup>29)</sup>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5)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세조 7년(1461) 6월 17일 乙酉條(세조실록 24권 25장).

26) ‘命罷刊經都監’, 성종 2년(1471) 12월 5일 壬申條(성종실록 13권 18장).

27) 문헌의 수를 건수(件數)로 표시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한 문헌에 해당하는 책권의 수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서 계수(計數)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본다. 김수온(金守溫)의 발문(1472)과 학조(學祖)의 발문(1495) 참조.

28) 간경도감 설치 당시의 직책에 대해서는 주 25) 참조.

29) ‘一切停罷而獨不罷刊經 役夫匠百有七十餘人’, 성종 2년(1471) 1월 21일 甲午條(성종실록 9권 12장).

[표] 간경도감 간행 언해 불전 참여 인원

서명 \ 직책	도제조	제조	부제조	사	부사	판관	계
능엄경언해 (1462년간)	3 (계양군, 윤사로, 황수신)	7	5	4	2	3	24
법화경언해 (1463년간)	2 (윤사로, 황수신)	8	2	5	2	0	19
금강경언해 (1464년간)	1 (황수신)	8	2	3	4	2	20
반야심경언해 (1464년간)	1 (황수신)	8	2	3	4	2	20
원각경언해 (1465년간)	1 (황수신)	9	1	5	3	1	2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의 불서 간행에는 계양군 증, 윤사로, 황수신 등이 도제조로 활동했고, 그 외에 한계희, 노사신, 박원형, 조석문, 강희맹, 윤자운, 홍응, 성임, 김수온 등이 참여했다. 종친으로는 효령대군, 승려로는 신미, 수미, 학열, 해초, 학조 등이 동참했다.

간경도감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상도의 상주목, 안동부, 진주부, 전라도의 남원부, 전주부, 황해도의 개성부에 분사를 두었다. 본사의 위치<sup>30)</sup>에 대해서는 기록상으로 전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몇 실록의 기사로 미루어 궁내는 아니고<sup>31)</sup> 경복궁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화재를 염려하여 간경도감 부근의 민가 23호를 철거시켰다는 기록<sup>32)</sup>과 경복궁내 사옹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간경도감의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기록<sup>33)</sup>이 그것이다.

간경도감의 설립 초기와 세조 당대에는 의욕적으로 간경 사업이 펼쳐졌으나, 세조 사후 예종대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 일로를 걸었다. 세조대 이래 계속되던 유신(儒臣)들의 반대가 예조·성종대에는 더욱 심해졌다. 성종 즉위 초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인 김수녕(金壽寧) 등이 극렬하게 혁파를 상소하였고<sup>34)</sup>, 급기야 성종 2년(1471)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간경도감 간행의 한문 불서들은 계율(戒律) 관련 장소(章疏)들과 선서(禪書)들이 주류를 이룬다. 간기 부분이 낙장인 책이 많아서 확인이 쉽지 않지만 대략 30건 정도가 현전한다.

세조는 <월인석보> 편찬의 여세를 몰아 왕 7년(1461)에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아미타경언해> 1권, <능엄경언해> 10권을 인간(印刊)한 바 있다. 이 활자본

30) 간경도감 본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서울: 1987).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부대 사학』 제20호(부산: 부산대 사학과, 1996) 참조.

31) '上幸刊經都監', 예종 1년(1469) 9월 1일 辛巳條(예종실록 7권 14장).

32) '刊經都監啓 火災可畏 請撤去傍近人家 命亦及二月撤去 凡二十三戶 給復賜米 悉如宮城傍近居人例'. 세조 8년(1462) 1월 30일 乙丑條(세조실록 27권 13장).

33) '夜司饗院東廊炭庫失火 延燒本院與刊經都監', 세조 12년(1466) 12월 14일 丙午條(세조실록 44권 49장).

34) '今刊經都監 本是權置衙門 事已便罷者也', 성종 1년(1470) 4월 14일 壬戌條(성종실록 4권 22장).

들도 간경도감 설치 후 목판으로 재간되었다. 간경도감 간행 언해 불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	서명	권수	저자	간행연도	간행지
1	대불정수능엄경언해	10	반탈밀제역, 계환해	1462	본사
2	묘법연화경언해	7	구마라집역, 계환해, 일여집주	1463	본사
3	선종영가집언해	2	현각찬, 행정주 정원수정, 세조구결	1464	본사
4	불설아미타경언해	1	구마라집역, 지의주석, 세조역해	1464	본사
5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	2	구마라집역, 혜능주해	1464	본사
6	반야바라밀다심경언해	1	현장역, 중희술	1464	본사
7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10	종밀소초, 세조구결	1465	본사
8	목우자수심결언해	1	지눌찬, 비현합결, 신미역	1467	본사
9	사범어언해	1	신미역	1467	본사

간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를 간경도감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표기법, 언해 체제, 불교 용어의 한자음 주음 등을 종합해 보면 간경도감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sup>35)</sup> 이는 중간본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가 간경도감본으로 보이는 <사범어언해>와 합철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일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 간행 불전언해서들은 대체로 대승불교 경전류이거나 선서류들이다. 한국불교 사상 형성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경전이거나 강원외의 선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해온 경전들이다. 한국불교 제종파의 소의경전 역할을 해온 불서들이었다.

간경도감본 국역 불서들은 이후에 간행된 여러 번역서, 곧 언해서들의 지침이 되어 후대에 ‘언해’라 불리는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였고, 새로 창제된 국문자로 한문 문장을 옮기는 특별한 방안(새로 제정된 국문자 보급)을 만들어 냈지만 왕실의 주도로 이루어진 까닭에 세조 사후 간경도감이 폐지되면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도 정음구결문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번역, 이른바 의역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는 당시의 번역이 매우 제한된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능엄경언해> (어제발) 4장 앞뒷면에는 당시에 언해가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비록 <능엄경언해>에 관한 것이지만 당시 불경언해가 얼마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해 준다.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닐 貞嬪韓氏等이 唱準호야닐 工曹參判臣韓繼禧 前尙州牧使 臣金守溫은 翻譯호고 議政府檢詳臣朴楸 護軍臣尹弼商 世子文學臣盧思愼 吏曹佐郎臣鄭孝常은 相考호고 永順君臣溥는 例一定호고 司贍寺尹臣曹變安 監察臣趙祉는 國韻 쓰고 慧覺尊子信眉 入選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히은 後에 御覽호샤 一定커시닐 典言曹氏 豆大는 御前에 翻譯 넘스오니라

35)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간행연도와 원간본의 비정은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 사적 고찰」, 『동악어문론집』 제28집(서울: 동악어문학회, 1993) 참조.

- |                                |                   |
|--------------------------------|-------------------|
| 1. 한문에 구결을 단다.                 | 세조                |
| 2.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한다.           | 해각존자 신미           |
| 3.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교정한다. | 정빈한씨 등            |
| 4. 정음으로 번역한다.                  | 한계희, 김수은          |
| 5. 번역된 문장을 여럿이 서로 비교·고찰한다.     | 박건,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
| 6. 예(例)를 정한다.                  | 영순군 부             |
| 7. 동국정운음으로 한자음을 단다.            | 조변안, 조지           |
| 8. 잘못된 번역을 고친다.                | 신미, 사지, 학열, 학조    |
| 9. 번역을 확정한다.                   | 세조                |
| 10. 소리내어 읽는다.                  | 두대                |

## V. 구결불경과 언해불경

위에서 불전언해가 이루어진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번역과 언해의 성격, 인간(印刊)의 주무 관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구결불경과 언해불전의 연관성, 그리고 <석보상절> 등의 의역 위주 문헌과 간경도감본 등 직역 위주 문헌의 실제 예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그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1)은 순독구결이 현토되어 있는 박동섭(朴東燮)씨 소장의 고려시대 <능엄경> 1권 앞부분인데, 김영배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sup>36)</sup> 책은 급남(及南)이 찬(撰)한 『수능엄경요해서』를 가진 것으로 중국의 판본이다. 남풍현은 구결이 현토된 시기가 늦어도 13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7)</sup> 1권 앞부분의 경 본문 및 요해 부분에 대해 순독구결을 현토한 구결문과 간경도감본 <능엄경언해>의 본문 및 요해 부분에 정음구결이 현토된 구결문, 그리고 그 언해문을 차례로 제시한다. 두 문헌의 비교에서 대부분의 문법 형태소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능엄경언해>의 정음구결문과 언해문이 약체자 구결이 현토된 박동섭본 구결 <능엄경>의 번역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이 아래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간행된 불경언해서들이 앞 시대 구결불경들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1) 가. 박동섭본 능엄경 1:3ㄴ, 본문

如是我聞ノハ 一時佛、在室羅筏城祇桓精舍ノ中  
 호라 이 호사

나. 능엄경언해 1:22ㄴ, 본문 정음구결문

如是를 我聞호스오니 一時에 佛이 在室羅筏城祇桓精舍호사

36) 김영배, 「조선초기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37) 남풍현, 「박동섭본 능엄경의 해제」, 『고려시대 능엄경(영인본)』(서울: 태학사, 1995).

다. 능엄경언해 1:22ㄴ~23ㄱ, 언해 부분

이 곧호물 내 듣조오니 혼뻬 부테 室羅筏城 祇桓精舍에 거사

2) 가. 박동섭본 능엄경 1:3ㄴ, 요해 부분

- ① 如是之法<sub>ㄴ</sub> 我從佛聞<sub>ㄴ</sub> 此<sub>ㄱ</sub> 集者<sub>ㄴ</sub> 依佛立言<sub>ㄴ</sub>  
을 여 혼니 는 이 호니니
- ② 證法<sub>ㄴ</sub> 有所授而已<sub>ㄴ</sub> 不必他說<sub>ㄴ</sub>  
이 언뎡 이니라
- ③ 一時之語<sub>ㄴ</sub> 亦因佛立<sub>ㄴ</sub> 諸經<sub>ㄴ</sub> 通用故<sub>ㄴ</sub>  
도 이니 에 로
- ④ 不定指也<sub>ㄴ</sub> 室羅筏<sub>ㄱ</sub> 亦曰舍衛<sub>ㄴ</sub>  
호시니라 은 라 호노니
- ⑤ 祇桓<sub>ㄱ</sub> 猶云祇樹也<sub>ㄴ</sub>  
은 |니라

나. 능엄경언해 1:23ㄱ, 요해 정음구결문

- ① 如是之法을 我從佛聞호스오라 호니 此는 集者 | 依佛立言호니
- ② 證法이 有所授而已라 不必他說이니라
- ③ 一時之語도 亦因佛立호니 諸經에 通用故로
- ④ 不定指也호니라 室羅筏은 亦曰舍衛라
- ⑤ 祇桓은 猶云祇樹也 | 라

다. 능엄경언해 1:23ㄱ~23ㄴ, 요해 언해문

- ① 이 곧호물 법을 내 부터를 조짜와 듣조오라 호니 이는 모뎡 사르미 부터를 븐조와
- ② 마물 세니 법이 심기산 디 이쇼물 증호물 썩르미라 구뵈여 다른 말 호디 아니니라
- ③ 혼 뻬라 혼 말도 썩 부터를 븐조와 세니 諸經에 通히 븐는 전츠로
- ④ 一定호야 ㄱ르치디 아니호니라 室羅筏은 썩 닐오디 舍衛라
- ⑤ 祇桓은 祇樹 | 라 닐음 곧호니라

예문(2)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법화경언해>의 번역 태도를 비교·검토한 것이다. <법화경> 권1의 방편품에 나오는 이른바 열 종류의 여시(如是)에 대한 부분이다.<sup>38)</sup>

38) 십여시(十如是)의 요해 부분에 대한 비교 연구는 김영배(앞의 논문)에 소상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可見이 爲相이오                      相本이 爲性이오      形具 | 爲體오
- 利用이 爲力이오                      乍起 | 僞作이오
- 資始 | 爲因이오                      助因이 爲緣이오      緣熟이 爲果 | 오
- 應果 | 爲報 | 오                      始終이 爲本末이오
- 窮盡이 爲究竟이니<법화경언해 1: 146ㄴ~147ㄱ, 요해부분 정음구결문>

- ② 相은 양지니 붓 거시 相이오 相入 根源이 性이오 體는 웃드미니 얼굴 ㄱ줄씨 體오
- 力은 히미니 ㄱ히 내야 븐는 것이 力이오 作은 니러날씨니 아뵈 이리어나 값간 니러
- 날씨 作이오 처썩 비룻는 것이 因이오 因을 도뵈씨 緣이오 緣이 니그면 果 | 오

(2)

가. 법화경언해 1:145ㄴ~146ㄱ, 본문 구결문

所謂諸法の 如是相과 如是性과 如是體와 如是力과 如是作과 如是因과 如是緣과 如是果와 如是報와 如是本末究竟等이라.

나. 석보상절 13:40ㄴ~41ㄱ

諸法이라 혼 거슨 이런 相과 이런 性과 이런 體와 이런 力과 이런 作과 이런 因과 이런 緣과 이런 果와 이런 報와 이런 本末究竟둘히라.

다. 월인석보 11:100ㄱ~100ㄴ

니르논 諸法の 如是相과 如是性과 如是體와 如是力과 如是作과 如是因과 如是緣과 如是果와 如是報와 如是本末究竟둘히라.

리. 법화경언해 1:146ㄴ

닐은 諸法の 이 곁흔 相과 이 곁흔 性과 이 곁흔 體와 이 곁흔 力과 이 곁흔 作과 이 곁흔 因과 이 곁흔 緣과 이 곁흔 果와 이 곁흔 報와 이 곁흔 本末究竟等이라.

<석보상절>은 오늘날의 번역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자유역이다. 이 글의 다음에 이어지는 십여시(十如是)에 대한 요해 부분<sup>39)</sup>과 더불어 번역의 태도 및 번역어가 여타의 언해본과는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다르다. <월인석보>는 정음구결이 현토된 원문이 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화경언해> 정음구결문의 내용과 흡사히 옮겨져 있다. 이런 현상은 <석보상절>, <월인석보>, ‘불전언해본’들에서 두루 확인된다.

다음의 현대역과 비교해 보면 <석보상절>의 번역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른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체,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작용,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값음, 이와 같은 근본과 끝과 구경 등이니라.  
<한글 대장경 중 법화경, 동국역경원, 1985:19>

果애 마초 드윈 거시 報ㅣ오 本末은 민과 근패니 처섬과 乃終패 本末이오  
ㄱ장 다음씨 究竟이라<석보상절 13:41ㄱ>

③ 보는 거시 相이오 相스 根源이 性이오 얼굴 ㄱ조미 體오  
利히 뿌미 力이오 값간 니로미 作이오  
비르소미 因이오 因 도보미 緣이오 緣 니그니 果ㅣ오  
果 마즈니 報ㅣ오 처섬과 乃終패 本末이오  
흔 그테 다드로미 究竟이니<월인석보 11:100ㄴ~101ㄱ>

④ 어루 보미 相이오 相스 미티 性이오 얼굴 ㄱ조미 體오  
利히 뿌미 力이오 값간 니로미 作이오  
비르소미 因이오 因 돕느니 緣이오 緣 니그니 果ㅣ오  
果 맛골뜨니 報ㅣ오 처섬 내종이 本末이오  
다드로미 究竟이니<법화경언해 1:148ㄱ, 언해문>

39) 십여시(十如是)의 요해는 앞의 주38) 참조.



예문(3)은 <아미타경>의 경 본문에 대한 번역을 <월인석보, 1459년 간>, <활자본 아미타경언해, ?1461년 간>, <목판본 아미타경언해, 1464년 간> 등의 차례로 살펴본 것이다.

(3)

1) ‘七重行樹와 皆是四寶 | 니 周市圍繞홀씩’의 번역

가. 월인석보 7:63ㄴ~64ㄱ

七重行樹와 다 네 가짓 보비니 두루 들어 범그러 이실씩

나. 활자본 아미타경언해 6ㄱ

七重行樹와 다 네 가짓 보비니 두루 들어 범그러 이실씩

다. 목판본 아미타경언해 7ㄱ

七重行樹와 다 네 가짓 보비니 두루 들어실씩

2) ‘非是算數之所能知며 諸菩薩衆도 亦復如是 하니’의 번역

가. 월인석보 7:69ㄱ

算으로 못내 헤여 알리며 菩薩衆도 또 이긋티 하니

나. 활자본 아미타경언해 12ㄴ

算數의 능히 아롭디 아니며 諸菩薩衆도 또 이 곁하니

다. 목판본 아미타경언해 14ㄴ

算數의 능히 아롭디 아니며 諸菩薩衆도 또 이 곁하니

앞의 <법화경> 번역에서와 같이 3책의 번역에 큰 차이가 없다. <월인석보>의 경우 정음구결문이 없음에도 두 언해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대역의 한쪽인 구결 <아미타경>이 함께 실리지 않았을 뿐, 전 시대부터 행해지던 전통이 이어진 번역, 이른바 구결 현토가 반영된 번역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예문(4)는 <법화경>의 경 본문을 언해한 <법화경언해>에 대하여 필자가 현대역한 내용과 동국역경원 간행의 <법화경> 번역본을 비교한 것이다. 언해가 정음구결문에 기반을 두어 직역 위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가.

① 爾時諸大菩薩이 而說揚言호샤디 善哉善哉실서 大雄世尊이여 諸衆生等を 易可化度 | 어시늘 能問諸佛甚深智慧호스오며 聞已信行홀씩 我等이 隨喜호노이다○ 於時世尊이 讚嘆上首諸大菩薩호샤디 善哉善哉라 善男子아 汝等이 能於如來에 發隨喜心호닛다○ 爾時 彌勒菩薩와 及八千恒河沙 諸菩薩衆이 皆作是念호샤디 我等이 從昔已來에 不見不聞如是호 大菩薩摩訶薩衆이 從地涌出호야 住世尊前호스와 合掌供養호스와 問訊如來호엿다라○ <법화경언해 5 : 94ㄱ~95ㄴ>

② 그때 諸大菩薩이 偈를 슬으샤디 도하시며 도하시쨌 大雄 世尊이여 諸衆生들홀 수이 化度커시  
 늘 能히 諸佛入 甚深 智慧를 묻조으며 듣조고 信行홀쨌 우리 隨喜호노이다 그제 世尊이 웃머리 諸大  
 菩薩을 讚歎호샤디 善哉善哉라 善男子아 너희 能히 如來入게 隨喜호을 發호닛다 그뻘 彌勒菩薩와 八  
 千 恒河沙 諸菩薩衆이 다 이 念을 호샤디 우리 네브터 오매 이 곁호 大菩薩 摩訶薩衆이 짜홀 從호야  
 소사나 世尊入 알피 住호스과 合掌 供養호스과 如來入게 묻조오몰 보디 못호며 듣디 못호엿다라 <법  
 화경언해 5 : 94~95>

③ 그때에 여러 큰 보살이 게를 사되시되, “좋으시며, 좋으시구나. 대웅 세존이시여. 제중생들을  
 쉽게 화도하시거늘 능히 제불의 매우 깊은 지혜를 물으며 듣고 신행하므로 우리 수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 웃머리 여러 큰 보살들을 찬탄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 능히 여래께 수희  
 심을 발하는구나.” 그때에 미륵보살과 팔천 향하사 제보살 무리가 다 이 생각을 하시되, ‘우리 옛날부  
 터 음에 이와 같은 대보살 마하살 무리가 땅을 따라 솟아나 세존의 앞에 머물러 합장 공양하여 여래  
 께 묻자음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였다.’ <역주 법화경언해 권5, 김무봉4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④ 그때 여러 큰 보살이 계승으로 말하였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 대웅이신 세존께서 / 많은 그 중생들 / 가히 쉽게 제도하며  
 매우 깊은 불지혜 / 부처님께 묻는 그들 / 듣고는 믿어 행하니 / 저희 또한 기쁘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는 여러 큰 보살을 찬탄하시었다.  
 “착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이 능히 여래를 따라 기쁜 마음을 내는구나!” 그때 미륵보살  
 과 팔천 향하의 모래같은 많은 보살이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지금껏 이렇게 많은 보살마하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세존 앞에 합장하고 공양하고 문  
 안드리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였는데…….’

<한글대장경 중 法華經, 李耘虛 譯, 東國譯經院, 1985:179>

나.

① 爾時 釋迦牟尼分身諸佛이 從無量千萬億 他方國土來者 | 在於八方 諸寶樹下호샤 師子座上에  
 結跏趺坐 | 어시늘 其佛侍者 | 各各 見是菩薩大衆이 於三千大千世界四方에 從地涌出호샤 住於虛空호  
 시고 各白其佛言호샤디 世尊하 此諸無量無邊阿僧祇菩薩大衆이 從何所來잇고 爾時諸佛이 各告侍者호  
 샤디 諸善男子아 且待須臾호라 有菩薩摩訶薩이 名曰 彌勒이 釋迦牟尼佛之所授記라 次後作佛호리니  
 已問斯事호스을쨌 佛今答之호시리니 汝等이 自當因是호야 得聞호스오리라○ <법화경언해 5 : 101  
 7~101>

② 그때 釋迦牟尼 分身 諸佛이 無量 千萬億 他方 國土를 從호야 오시니 八方 諸寶樹下에 겨샤  
 師子座上에 結跏趺坐호엿거시늘 그 부텃 피스오시니 이 菩薩 大衆이 三千大千世界 四方에 짜홀 從  
 호야 소사나샤 虛空에 住호샤몰 各各 보시고 各各 부텃기 슬으샤디 世尊하 이 모든 無量 無邊 阿僧  
 祇 菩薩 大衆이 어느 고들 從호야 오니잇고 그뻘 諸佛이 各各 피스오시니드려 니르샤디 諸善男子아  
 안죽 저근던 기드리라 菩薩 摩訶薩이 일후미 彌勒이 釋迦牟尼佛入 授記호샤니라 버거 後에 부텃 드  
 외리니 호마 이 이몰 묻조을쨌 부테 이제 對答호시리니 너희 받드기 이몰 因호야 시러 듣조오리라  
 <법화경언해 5 : 1027~102>

③ 그때에 석가모니의 분신인 제불이 한량없는 천만억 타방 국토를 종하여(국토로부터) 오시니 8  
 방의 많은 보수 아래에 계시어 사자좌 위에 걸가부좌하여 있으시거늘 그 부처 모신 이 이 보살 대  
 중이 삼천 대천 세계 사방에 땅을 따라 솟아나 허공에 머무심을 각각 보시고 각각 부처께 사되시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기 보살 대중이 어느 곳을 따라 온 것입니까?” 그때에

40) 김무봉, 『역주 법화경언해』 권5,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2: 53-54쪽).

여러 부처님이 각각 모신(모셔 온) 이에게 이르시되, “여러 선남자야, 아직 잠깐 기다려라. 보살 마하살의 이름이 미륵인 분이 석가모니불의 수기를 받으신 것이다. 다음으로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니, 이미 (그 보살이) 이 일을 물으므로 부처께서 이제 대답하실 것이니, 너희 반드시 이를 인하여 능히 들을 것이다.”  
 <역주 범화경언해 권5, 김무봉(앞의 책:57~5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④ 그때 석가모니불의 분신이신 여러 부처님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타방 국토에서 찾아와 8방의 많은 보리나무들도 각각 많은 보살 대중이 삼천大千 세계의 땅으로부터 솟아나고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처님들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가없이 많은 아승지(阿僧祇)의 보살대중이 어디에서 왔나이까.”

그때 여러 부처님께서 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미륵이라 이름하는 보살이 석가모니불의 수기를 받고 다음에 성불하리라. 그 보살이 이 일을 이미 물었으니, 석가모니불께서 대답하실 것이므로 너희들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리라.”  
 <한글대장경 중 法華經, 李耘虛 譯, 東國譯經院, 1985:182>

필자의 현대역은 가능한 한 언해된 원문에 충실한 번역, 이른바 ‘등량(等量)의 이식(移植)’에 역점을 두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석보상절>의 번역에 비하면 다른 간경도감본들과 마찬가지로 <범화경언해> 역시 축자역 위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 본문의 어휘들 중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진 예가 상당수 발견되고, 문장이 전체적으로 정음구결이 현토된 문장에 바탕하여 번역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 행해진 번역과는 얼마간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본 대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행해진 번역 불전 중 원문이 함께 하지 않은 <석보상절>은 비교적 자유로운 번역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당시의 일상어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간행된 <월인석보>는 원문이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간경도감본들과 큰 차이가 없다. 직역에 가깝다. 이는 초기의 자유역(의역)에서 정음구결문을 앞에 두고 번역이 행해진 이른바 ‘언해’라는 형식의 번역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후의 간경도감본 등의 언해본들에서는 더 이상 자유역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 작업이 국가의 중앙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문헌이 관판본인데다가 당시의 열악한 출판 환경으로 다른 유형의 번역(翻譯)이 가능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새로 제정된 문자로 행해진 일이어서 일반 민중들에 의한 번역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난한 작업이었고, 출판 관련 물자 조달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직역 위주 번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또 한문불전에 언해문을 대응시킨 대역 형식의 번역 양식으로 인해, 의역을 할 경우 원의가 굴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직역 위주의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이 당시의 불전언해가 축자역 위주로 행해진 가장 큰 이유였고, 이런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당시 언해불전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VI. 결 론

지금까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되었던 불전언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를 통해 불전을 우리말로 읽고 적기 위한 노력이 7세기경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고유의 표기 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표기의 형식은 한자를 빌어다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적는 이른바 차용표기의 형태로 이루어졌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립어인 중국어를 적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문자를 빌어다 교착어인 우리말의 일부나마 적을 수 있었던 차용표기 체계를 우리는 이두(吏讀), 구결(口訣), 향찰(鄉札)이라고 부르고, 이 중 한문의 번역과 관련된 표기 체계를 특히 구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구결표기가 가능했던 것은 7세기경에 이르러 한자의 음과 훈이 우리말로 확정되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경이나 요해 등의 원문은 한문 경전을 그대로 쓰되, 구두에 구결을 달아 읽던 구결불경의 양식은 신라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려조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경을 우리말로 읽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널리 쓰였다.

구결표기는 한자의 원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약체자(略體字)의 형태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결현토의 전통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정음구결의 현토로 진전되었다. 불전의 한글화, 이른바 언해불전의 편찬 목적이 어디에 있었건 당시의 불전언해는 앞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꽤 엄격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종래 한문구결을 달아 읽던 방법에서 정음구결을 달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는 ‘언해불전’이라는 독특한 양식을 창안해 냈다.

그런데 언해불전 중 <석보상절>과 같은 의역 위주의 한두 문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역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당시의 일상어 반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언해가 우리 나름의 독특한 번역 양식으로 자리잡기는 하였지만 한자어가 많고 번역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정음이 병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 민중이나 불교 신도들이 어떻게 이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 이후에 간행된 언해서들 중 <월인석보>는 <석보상절>에 비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있고, 이후에 간행된 간경도감본들은 구결현토부터 인간(印刊)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번역과 출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자역의 번역 양식으로 정형화되었다. 이후 간행된 불전언해들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향후 고려시대의 구결불경과 언해불경과의 전통 계승 문제, 그리고 같은 경전을 대상으로하여 번역한 문헌일 경우 대표적인 의역 문헌인 <석보상절>과 여타 불경언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등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훈민정음(Hunminjeongeum), 구결(Gugyeol), 언해(Eonhae),  
번역(translation), 불전(Buljeon), 간경도감(Gangyongdogam),  
현대역(modern translation), 석보상절(Seokbosangjeol)

## A Few Problems with Buljeon Eonhae

Kim, Mu-bong

This paper concerns the Buljeon Eonhae(佛典諺解) works that had been published since the creation(1446.A.D)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The investigation results tell that the efforts to read and write Buljeon in Korean started as early as the seventh century, when, however, they had to borrow Chinese characters(漢字) to indicate the auxiliary words and endings of words since they didn't have their unique medium to mark their language. That kind of marking is called borrowing transcription(借用表記).

The way they read Buljeon by adding Gugyeol provided the basis for Buljeon Eonhae(佛典諺解), which was a peculiar translation style, since the appearance of Hunminjeongeum. That resulted in the activ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many Buljeon from King Sejong to Sejo, which opened the era of Eonhae Buljeon. Whatever the objective of Hangeulization of the Buljeon was, the Buljeon Eonhae works followed fairly stringent procedures as well as succeeded the traditions from the previous years. Most of the Buljeon Eonhae works kept a distance, however, from people's everyday talks being in the manner of literal translation except for a few works like Seokbosangjeol(釋譜詳節) that were in the manner of free translation. Even though there was no denying that Eonhae was established as a unique translation style of the days, its restrictions couldn't be disposed of including too many Chinese characters and too obvious atmosphere of translation. It's still a big question how the general public or Buddhists made use of Eonhae when it was accompanied by Hunminjeongeum.

The major discussions were argued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ugyeol Buljeon before Hunminjeongeum and the Eonhae Buljeon after its appearance.
2. What aspects did translation take right after Hunminjeongeum, and what style was Eonhae referred to?
3. The system of Gangyongdogam that led the movement toward Buljeon Eonhae and the process of Buljeon Eonhae.
4. Verifying the succession of the traditions of Gugyeol Buljeon and Eonhae Buljeon by using examples.
5. Investigating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Eonhae Buljeon by comparing Eonhae Buljeon and Chinese scriptures in terms of their modern translations.